

[한중경제협회] 4월2주차 한중 일일 동향

4월10일(월)	
중국>사회/문화	<p>중국 20~30 대 밀레니얼 세대 70% '내 집' 있다, 세계 1 위 HSBC 은행 9 개국 9000 년 밀레니얼 세대 대상 조사 중국 '내 집' 보유 비중, 구매 의향, 부모 의존도 모두 높아 소위 밀레니얼 세대에 속하는 중국 80 허우(後 1980 년대생)와 90 허우(1990 년대생) 중 내 집을 갖고 있는 사람의 비중이 70%에 육박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p> <p>중국 온라인 매체 평파이뉴스는 최근 HSBC 은행이 세계 9 개 국가의 약 9000 명의 밀레니얼 세대(1980 년대 초반부터 2000 년대 초반 출생 세대) 청년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중국 밀레니얼 세대의 주택 보유자 비율이 70%로 세계 1 위를 차지했다고 8 일 보도했다.</p> <p>멕시코가 46%로 2 위였으며 프랑스(41%), 미국(35%), 말레이시아(35%), 캐나다(34%), 영국(31%), 호주(28%), 아랍에미리트(26%) 순이었다.</p> <p>출처: China.com 출처: 아주 경제</p>
중국>사회/문화	<p>청명절 연휴 중국 관광 1 억명, 주요 해외 여행지에 한국 없어</p> <p>지난 2일부터 4일 청명절 연휴를 맞아 1억명에 육박하는 중국인이 나들이나 여행을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p> <p>중국 관광 당국인 국가여유국이 4일 공개한 통계에 따르면 중국 전역의 관광지 찾은 방문객은 총 9300만명으로 관광수입은 총 390억 위안(약 6조4000억원)에 달했다. 대부분이 국내 관광에 집중됐지만 유급휴가를 이용해 해외 여행을 나서는 유커(중국인 관광객)도 많았다. 주요 해외 관광지에 한국은 없었다.</p> <p>출처: 아주 경제</p>
중국>경제정책	<p>중국 송안신구에 몰려가는 국유기업들</p> <p>중국 최대조선소, 허베이성 기업이전 결정 .중국 선전(深圳) 경제특구, 상하이 푸둥(浦東)신구에 이어 세 번째 국가급 경제특구로 주목 받는 송안(雄安)신구 개발에 국유기업들이 깊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p> <p>중국 국무원에서 직속 관할하는 중앙국유기업인 중국선박중공그룹(중선중공, CSIC)은 5, 6 일 이틀간 열린 당조직, 이사회 회의를 걸쳐 6 일 송안신구로의 기업 이전을 결정했다고 제일재경일보가</p>

	<p>7 일 보도했다. 중선중공뿐만이 아니다. 지난 1 일 중국 당중앙과 국무원이 송안신구 조성계획을 발표한 이후 현재까지 모두 13 개 국유기업에서 회의를 열고 당중앙의 송안신구 설립 결정을 적극 지지하며 향후 송안신구 건설에 적극 참여할 것을 결정했다.</p> <p>출처: 아주 경제</p>
<p>중국>마케팅</p>	<p>본엔젤스, 중국마케팅 데이터분석 플랫폼 '메저차이나'에 투자</p> <p>초기기업 전문투자 벤처캐피탈 본엔젤스벤처파트너스(각자대표 강석훈·송인애)는 중국 마케팅 데이터분석 플랫폼 메저차이나(공동대표 손정욱·천계성)에 투자했다고 10일 밝혔다.</p> <p>메저차이나(MeasureChina)는 중국 마케팅을 위한 소셜/e커머스 데이터 분석 플랫폼이다. 빅데이터를 자동수집, 분석해 중국 소비자들의 성향과 브랜드별 선호도, 이에 따른 판매 추이 등을 분석하고 이에 맞는 실행 방안도 제안한다.</p> <p>이 회사는 이번 투자를 계기로 올해 중국R&D센터와 홍콩, 일본에 사무실을 개설해 본격적인 해외 시장 공략에 나선다는 계획이다.</p> <p>출처: 부산 일보</p>
<p>중국>건설업</p>	<p>"두산인프라코어, 중국 굴삭기 시장 수혜"-NH투자증권</p> <p>중국 굴삭기 시장 호조로 두산인프라코어가 수혜를 볼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p> <p>유재훈 NH투자증권 연구원은 10일 올해 중국 굴삭기 시장이 전년 보다 43% 성장한 9만대로 성장할 것이라며 이 같이 전망했다.</p> <p>그는 "2008~2011년까지 판매한 54만대의 교체주기가 도래했다"며 "중국에서 생산된 굴삭기의 내용연수는 8년 수준으로 굴삭기 가동률이 증가하면서 교체수요가 빠르게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p> <p>출처: 뉴스핌</p>
<p>중국>건강, 미용</p>	<p>올리브영 중국사업, 쉽지 않은 시장 안착</p> <p>지난해 중국 법인 순손실 33억원..2년새 11배 증가 해외 드러그스토어 및 국내 브랜드숍과 경쟁에서 열세 사드보복 여파도 악재 PB 상품과 유럽 화장품 및 중국 로컬 브랜드 입점 전략 헬스앤뷰티 스토어 업계 1위인 CJ 올리브영이 국내에서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으나 중국에서는 진출 3년이 지나도록 고전을 면치 못하며 적자폭을 늘리고 있다. 국내에서 800개 매장을 운영하며 1조 1000억원이 넘는 매출을 올렸지만, 한국식 유통채널로 중국시장을 공략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점에서 현지 사업 성장에 대한 회의적인 평가가 적지 않다.</p> <p>업계 관계자는 "이마트와 롯데마트 등도 성공하기 쉽지 않은 것이 중국 유통채널 시장"이라며 "중국진출 3년이 넘어섰지만 7개 매장만 운영되고 있고 해외 드러그스토어와 국내 브랜드숍과 경쟁해 고객을 유치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점은 사업 불확실성을 키우는 원인"이라고 말했다.</p> <p>출처: 아시아 투데이</p>

4 월 11 일(화)

<p align="center">중국>금융/증권</p>	<p>"1년새 주가 60% 급등" 세계 1위 등극한 중국 마오타이酒</p> <p>'중국의 명주(名酒)'로 불리는 마오타이(茅台)가 세계 1위 주류회사 자리에 등극했다. 상하이증시에서 거래되는 마오타이 제조사인 구이저우마오타이(貴州茅台)의 시가총액이 지난 7일(현지시간) 기준으로 4935억 위안, 달러로 환산하면 약 715억 달러(약 82조원)를 기록해 글로벌 주류기업 가운데 1위를 차지했다고 베이징일보가 11일 보도했다. 이는 그간 1위 자리를 굳건히 지켜왔던 영국 주류업체 디아지오의 시가총액 711억 달러를 뛰어넘은 것이다.</p> <p>다만 지난 10일 구이저우마오타이 주가는 0.93% 하락하며 시가총액은 708억 달러로 줄었다. 같은날 런던증시에서 거래되는 디아지오의 시총은 약 710억 달러로, 구이저우마오타이는 1거래일만에 다시 시총 1위를 내주었다. 중국 고급술의 대명사인 마오타이는 시진핑 지도부의 부패와의 전쟁으로 직격탄을 입었다. 하지만 최근 바이주 경기 회복세로 매출이 회복하면서 구이저우마오타이 주가는 연일 최고치를 갱신하고 있다. 최근 1년새 주가가 60% 가까이 뛰며 현재 주당 400위안에 육박하고 있다.</p> <p>출처: 아주 경제</p>
<p align="center">중국>자동차</p>	<p>'세계 최대 전기차 시장' 중국 광둥성 공장 설립하는 테슬라</p> <p>세계적인 전기차기업 테슬라가 중국 남부 광둥(廣東)성에 공장 설립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테슬라가 세계 최대 전기차 시장인 중국을 적극 공략하고 있는 모습이다.</p> <p>10일 중국 남방도시보에 따르면 테슬라는 현재 광둥성에 독자(단독투자) 형식으로 공장 건설을 계획중이다. 이미 공장 부지 선정도 마쳤으며, 관련 사업은 관련 정부부처 승인만 기다리고 있다. 테슬라는 당국의 승인을 거친후 연내 중국 공장 건설 계획을 대외에 공표할 예정이다.</p> <p>출처: 아주 경제</p>
<p align="center">중국>자동차 산업</p>	<p>기아차, 중국 시장 부진에 실적 하락 예상-케이프증권</p> <p>케이프투자증권은 기아차(000270)가 중국 시장 부진으로 실적 하락이 예상되며 목표주가를 5만1,000원으로 하향 조정했다. 투자의견은 매수를 유지했다.</p> <p>케이프투자증권은 11일 기아차의 지난 14분기 실적이 영업이익 5,570억원, 순이익 5,890억원으로 시장 기대치를 하회할 것으로 전망했다. 국내 공장 생산량은 양호하지만, 주요 시장인 미국 및 중국시장 판매량 부진으로 수익성이 하락할 것으로 내다봤다.</p> <p>특히 중국 법인의 경우 매출액에는 영향이 없지만, 전체 판매량의 20% 가량을 차지하는 주요 시장으로 사드 배치 후폭풍에 따른 판매량 감소가 장기화 될 경우 손익에 끼치는 영향이 늘어날 것이라는 설명이다.</p> <p>출처: 서울 경제</p>

<p>중국>무역</p>	<p>인천시, 인천본부세관과 손잡고 중국 무역장벽 뚫는다!</p> <p>인천시가 인천본부세관과 손잡고 최근 악화된 한·중 관계와 자유무역협정(FTA)활용 촉진을 통한 인천 기업의 수출입 애로사항 해소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p> <p>인천시와 인천본부세관은 11일 인천시청에서 한·중 FTA 활용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식을 체결했다.</p> <p>이번 협약식은 인천시와 인천본부세관이 실질적인 기업지원 업무협조체계를 구축해 관내 중소기업의 한·중 FTA 활용 촉진을 통한 對중국 수출 경쟁력 강화와 대외무역증진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p> <p>인천본부세관은 인천시 소재 중소기업과 지난 11월 중국 웨이하이시에 설립한 『駐中 인천(IFEZ)경제무역대표처』전시입점업체에 대해 한·중FTA 활용 교육과 개별 컨설팅을 제공키로 했다.</p> <p>또한 중국내 비관세장벽 해소와 신속통관을 지원하기로 했다.</p> <p>이에 따라 인천시도 중소기업의 중국 시장진출에 필요한 행정절차 제공과 각종 애로사항 해결에 적극 나선다는 방침이다.</p> <p><i>출처: 브릿지 경제</i></p>
<p>4 월 12 일(수)</p>	
<p>중국>금융/증권</p>	<p>[중국증시] 숭안신구 수혜주 양극화 '뚜렷'...상하이종합 0.46% 하락</p> <p>중국 주식시장에 불던 숭안신구 효과가 주춤하며 12일 중국증시도 급락했다. 이날 상하이종합지수가 전 거래일보다 15.14포인트(0.46%) 내린 3273.83으로 거래를 마감했다. 선전성분지수는 68.48포인트(0.64%) 내린 10587.31로 장을 마쳤다. 창업판 지수는 20.13포인트(1.05%) 내린 1897.51로 거래를 마감했다.</p> <p>상하이·선전증시 거래대금은 각각 3115억, 3417억 위안에 달했다. 업종별로 살펴보면 환경보호(-3.25%) 하락한 것을 비롯해 건설자재(-2.52%), 호텔관광(-1.57%), 전자IT(-1.56%), 철강(-1.52%), 화공(-1.31%), 전자부품(-1.29%), 기계(-1.26%), 석탄(-1.25%), 미디어·엔터테인먼트(-1.09%), 선박제조(-0.87%), 항공제조(-0.86%), 자동차(-0.71%), 시멘트(-0.64%), 비철금속(-0.51%), 교통운수(-0.43%), 석유(-0.42%), 바이오제약(-0.26%), 부동산(-0.12%) 등으로 내린 반면 전력(1.04%), 주류(0.86%), 가전(0.37%), 금융(0.2%) 등으로 올랐다.</p> <p><i>출처: 아주 경제</i></p>
<p>중국>자동차</p>	<p>중국 3월 자동차 판매량 증가율 대폭 둔화</p> <p>최근 상승세를 탔던 중국 자동차 판매량이 3월 들어 다소 힘이 빠지는 모습을 보였다.</p> <p>중국자동차공업협회가 11일 공개한 통계에 따르면 지난 3월 중국 자동차</p>

	<p>생산량과 판매량은 각각 260만4000대, 254만3000대로 전년 동기대비 3%, 4% 증가에 그쳤다. 이는 지난해 3월 증가율과 비교해 7.2%p, 4.8%p씩 크게 둔화된 수준이라고 국제재선(國際在線)이 12일 보도했다.</p> <p>이는 최근 중국 당국이 자동차 취득세를 인상하고 한반도 사드 배치 등에 대한 불만으로 한국 브랜드 불매 운동이 확산되는 등의 영향을 받은 때문이다.</p> <p>1분기 전체로는 상승세를 이어갔다. 1~3월 중국 자동차 생산량은 713만대, 판매량은 700만 대로 전년 동기대비 8%, 7%씩 증가해 지난해 1분기 증가율을 각각 1.8%p, 1%p씩 웃돌았다.</p> <p>출처: 아주 경제</p>
<p>중국>제약업</p>	<p>중국, 바이오 제약의 강자로 부상...中다국적 제약업체, 현지 스타트업 개발 약품에 잇따라 베팅</p> <p>중국이 바이오 제약의 강자로 부상하고 있다. 다국적 제약업체들이 현지 스타트업이 개발한 약품에 잇따라 베팅하고 있다. 10 일(현지시간)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중국은 미국에 이어 두 번째로 바이오 제약 임상시험이 많이 이뤄지는 등 생명공학 분야의 주요 생산지로 부상했다.</p> <p>일라이릴리가 라이선스를 얻은 새 항암제들은 설립된 지 6 년에 불과한 상하이 소재 스타트업 이노벤트바이오로직스가 개발한 것이다.</p> <p>이노벤트는 지난 2015 년 5600 만 달러(약 640 억 원)에 항암제 세 개를 공동 개발하는 내용의 계약을 따냈다. 미국 임상시험에서 통과되면 이노벤트는 앞으로 10 년간 14 억 달러 이상의 매출을 올릴 것으로 기대된다.</p> <p>출처: 이투데이</p>
<p>중국>금융업</p>	<p>중국 알리페이, 국내 금융시장 '노크'</p> <p>중국의 알리페이가 케이뱅크 대주주로 참여함과 동시에 카카오페이에 투자하면서 국내 금융시장에서의 영역을 넓혀가고 있다.</p> <p>인터넷전문은행부터 모바일 간편 결제까지 알리페이와 손 잡았다.</p> <p>중국은 최대 전자상거래업체 알리바바그룹홀딩의 핀테크 자회사 앤트파이낸셜이 우리나라의 카카오페이에 2 억 달러(2292 억 원)를 투자했다. 카카오페이는 이를 바탕으로 오프라인 제휴 가맹점을 늘려 시장 확대에 나설 예정이다.</p> <p>알리페이는 모바일 간편 결제 시장에서 카카오페이와 손잡는 한편 국내 1 호 인터넷전문은행인 케이뱅크에 주주사로 참여하고 있다. 알리페이는 글로벌 분야에서 케이뱅크와 협력할 것으로 예상된다.</p> <p>2015 년에는 알리바 마윈 회장이 기자간담회에서 '코리아 페이'를 만들겠다고 공언한 바 있었으나 결국 카카오페이와 손을 잡는 것으로</p>

	<p>시장에 들어오게 됐다.</p> <p>http://www.whitepaper.co.kr/news/articleView.html?idxno=84439</p>
중국>코팅제 조업	<p>한일진공, 중국 기업과 25 억 규모 공급계약</p> <p>한일진공(123840)은 중국 상하이 바쿤 트레이딩(SHANGHAI BAKUN TRADING)과 25 억 3405 만원 규모의 진공코팅장비 공급계약을 체결했다고 12 일 공시했다.</p> <p>이는 2016 년 말 연결재무제표 매출액 대비 12.71%에 해당한다.</p> <p>계약기간은 올해 9 월 30 일까지다.</p> <p>출처: 뉴시스</p>
4 월 13 일(목)	
중국>정치	<p>"남북한 모두 중국말 듣지 않아"</p> <p>"외부에서 중국의 북한에 대한 영향력을 확대 해석하고 있다. 남북한 모두 중국의 말을 듣지 않는다."</p> <p>중국 외교전문가인 환쥬쥬 중국국제문제연구원 상무부원장이 전날 베이징에서 열린 중국기자협회 신문 좌담회에 참석해 이같이 전하며 북핵 문제 해결의 어려움을 토로했다고 홍콩 명보가 13 일 보도했다.</p> <p>환 부원장은 "지금 한반도 정세가 비바람에 흔들리듯 위태롭다"며 "외부에서 중국의 북한에 대한 영향력과 역할을 과대평가하고 있지만 사실 (중국)은 별로 영향력이 없고, 오히려 조금 줄어든 면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핵무기 실험, 사드 배치에 있어서 남북한 모두 중국의 말을 듣지 않는다"고도 지적했다.</p> <p>출처: 아주 경제</p>
중국>경제정책	<p>中 3 월 소비자물가 상승률 '낮고', 생산자물가 상승률 '높고'</p> <p>지난 2월 1% 밑으로 떨어진 중국 소비자물가지수(CPI) 상승률이 3월에도 저조한 수준을 지속했다. 8년 5개월 만에 최고 상승폭을 보인 생산자물가지수(PPI)는 3월에도 7%를 크게 웃돌며 고공행진했다.</p> <p>중국 국가통계국의 12일 발표에 따르면 3월 중국 CPI의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은 0.9%로 2월(0.8%)에 이어 1%를 밑돌았다. 이는 시장 전망치인 1%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p> <p>낮은 물가 상승률의 배경으로는 식품가격 하락이 꼽혔다. 3월 중국 식품 가격은 전년 동기 대비 4.4%가 하락했다. 특히 채소가격이 27.9%의 급격한 하락폭을 보였다. 비식품군 가격은 전년 동기 대비 2.3% 오르며 전달 대비 상승폭을 0.1%포인트 확대했다.</p> <p>성귀칭(繩國慶) 중국 국가통계국 선임 통계사는 "3월 식품과 에너지 가격 하락분을 제외하면 CPI 상승폭은 2.0%로 지난 1~2월과 비슷하다"면서 "</p>

	<p>일시적인 현상으로 물가는 안정을 유지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출처: 아주 경제</p>
중국>무역	<p>미국, 지난해 무역 규모 4년만에 세계 1위..."중국 경제 침체 여파" 중국 경기 침체 여파로 지난해 미국 무역 규모가 4년 만에 세계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비즈니스 인사이더 등 외신이 1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올해 세계 무역 규모는 2.4% 증가할 전망이지만 미국발 보호무역주의와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등이 변수가 될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왔다.</p> <p>저렴한 생산비와 인건비로 '세계의 공장'으로 통했던 중국은 지난 2013년부터 미국을 넘어 세계 무역 시장을 주도했다. 그러나 인건비와 토지 가격이 급등하면서 중국을 떠나 베트남 등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들이 늘고 있어 제조업에 타격을 받고 있다. 지난 2년간 위안화 가치가 달러 대비 약 10% 하락한 것도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된다</p> <p>출처: 아주 경제</p>
중국>부동산 산업	<p>중국 부동산개발업체 스마오, FC바르셀로나와 제휴 박차 '차이나머니'의 해외 유명 축구 구단 투자 열풍이 식지 않고 있다. 최근에는 중국 유명 부동산개발업체가 스페인 FC 발르셀로나 인수에 나섰다. 지난 12일 중국 유력 매체 왕이차이징(網易財經)은 "중국 증권 부동산업체 스마오(世茂)가 명문 스페인 축구클럽 FC 바르셀로나와의 제휴를 추진 중"이라고 발표했다. 양측은 전략적 지분 인수, 타이틀스폰서, 유니폼 광고 등 다양한 방식의 협력안을 모색 중이며 13일 관련 소식을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p> <p>일각에서는 이번 인수를 기점으로 중국 부동산 기업의 명문 축구구단 사들이기 열풍이 높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p> <p>무엇보다 중국 정부의 축구 육성 기조가 부동산 기업의 관련 투자를 이끌었다는 분석이다</p> <p>출처: 뉴스핌</p>
중국>화장품 산업	<p>SK 케미칼, 친환경 소재로 중국 화장품 시장 공략 SK 케미칼의 친환경 소재가 거대 화장품 소비시장인 중국에서 관심을 끌고 있다.</p> <p>SK 케미칼은 지난 12일부터 이틀간 중국 상하이전람센터에서 열린 '룩스팩 상하이(LUXE PACK Shanghai) 2017'에 친환경 코폴리에스터 PETG가 적용된 최신 화장품 용기 20여종을 선보였다고 13일 밝혔다.</p> <p>중국 화장품 시장은 2020년까지 매년 8% 이상의 성장세가 예상돼 글로벌 화장품 회사와 중국 업체들의 고급화와 차별화 경쟁이 가열되고 있다. 이에 고급 화장품 용기 소재에 대한 현지 업계의 관심도 증가하는</p>

	<p>추세다. 출처: 경향 비즈</p>
<p>4 월 14 일(금)</p>	
<p>중국>무역</p>	<p>예상치 크게 웃돈 3 월 중국 수출입 성적표</p> <p>중국의 지난 3 월 수출입이 시장 예상치를 훌쩍 뛰어넘으며 거침없는 증가세를 보였다. 13 일 해관총서에 따르면 중국의 3 월 수출액이 위안화 기준으로 전년 동비 22.3% 늘었다. 시장 예상치(8%)는 물론 전달의 증가율(4.2%)를 크게 웃돈 것이다.</p> <p>3 월 수입액은 위안화 기준으로 26.3% 늘었다. 전달의 증가율(44.7%)은 밑돌았지만 시장 예상치(15%)를 웃돌았다.</p> <p>3 월 무역수지도 1643 억 4000 만 위안(약 27 조원)의 흑자를 기록하며 시장 예상치를 웃돌았다. 중국은 지난 2 월엔 603 억 6000 만 위안의 무역적자를 기록했다. 중국이 무역적자를 기록한 것은 지난 2014 년 2 월 이래 처음이었다.</p> <p>달러 기준으로는 수출입이 각각 전년 동비 16.4%, 20.3% 증가했으며, 무역수지는 239 억 3000 만 달러에 달했다.</p> <p>이로써 중국의 1 분기 수출은 위안화 기준으로 14.8% 증가했으며, 같은기간 수입은 31.1% 늘었다. 무역수지는 4549 억 4000 만 위안(약 75 조원) 흑자를 기록했다.</p> <p>출처: 아주 경제</p>
<p>중국> 환경</p>	<p>중국, 노력한다더니... 1 분기 징진지 주요도시 초미세먼지 오히려 늘어</p> <p>중국 당국이 대기오염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거듭 강조했지만 심각한 대기오염에 시달리고 있는 징진지(베이징·톈진·허베이성) 지역 등의 대기질 상태는 올해 들어 오히려 나빠진 것으로 확인됐다.</p> <p>중국 환경부가 10 일 공개한 '2017 년 1 분기 전국 주요지역 및 74 개 도시 대기질 상황'에 따르면 심각한 스모그와 초미세먼지로 신음하고 있는 징진지 지역 13 개 도시의 대기오염이 개선되기는커녕 오히려 심각해진 것으로 파악됐다고 중국경제망(中國經濟網)이 11 일 보도했다.</p> <p>환경부에 따르면 올 1 분기 징진지 지역 13 개 도시의 대기질 우수일수 비중은 52.1%로 전년 동기 대비 7.5%포인트 줄었다. 상대적으로 대기오염이 심각하지 않은 주장 삼각주 지역 9 개 도시의 대기질 우수일수 비율도 90%로 전년 동기 대비 5.5%포인트 감소했다.</p> <p>출처: 아주 경제</p>

<p>중국>금융</p>	<p>중국 인민은행, 14거래일 만에 역RP 거래 재개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이 14 거래일 만에 역환매조건부채권(역 RP) 거래를 재개했다. 13 일 인민은행은 역 RP 운영으로 7 일물 700 억위안, 14 일물 200 억위안, 28 일물 200 억위안을 공급하기로 했다. 총 1100 억위안(약 18 조원)에 달하는 규모다. 이날 만기가 돌아오는 400 억위안 규모의 역 RP 물량을 감안하면 700 억위안을 순공급하는 셈이다. 인민은행은 시중에 유동성이 충분하다며 지난 3 월 24 일부터 12 일까지 13 거래일 연속 역 RP 운영을 중단해 왔다. 이 기간 인민은행은 만기 도래 역 RP 로 총 4900 억 위안의 유동성을 회수했다. 한편 이와 별도로 이날 중국 금융시장에 만기가 돌아오는 중기유동성지원창구(MLF) 물량은 2170 억위안이다. 출처: 뉴시스</p>
<p>중국>화장품 산업</p>	<p>SK 케미칼, PETG 화장품 용기 중국시장 공략 강화 SK 케미칼은 12 일부터 13 일까지 중국 상하이전람센터에서 열린 '룩스팩 상하이 2017'에서 친환경 코폴리에스터 PETG 가 적용된 최신 화장품 용기 20 여종을 선보였다고 13 일 밝혔다. SK 케미칼은 이와 함께 중국 시장 맞춤형 마케팅 프로그램 코스메틱 로드쇼도 함께 진행했다. 코스메틱 로드쇼는 중국 현지 화장품 회사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직접 브랜드 별 화장품 용기에 가장 적합한 친환경 소재를 소개하고 기술을 지원하는 프로모션이다. SK 케미칼은 중국 시장 공략을 위해 룩스팩 상하이를 포함 홍콩 코스모프로프, CBE 등 주요 화장품 박람회에 참석해 마케팅 활동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SK 케미칼 관계자는 "앞으로도 다양한 용도 개발을 통해 PETG 를 프리미엄 화장품 용기 의 핵심 소재로 키워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출처: 뉴시스</p>

**중국>화장품
산업**

토니모리 계열사 '라비오프', 中 킵킹그룹과 3000억 수출계약

라비오프는 지난 6일 킵킹그룹과 중국 오프라인을 대상으로 5년간 약 3000억원 규모의 수출계약을 체결(공급가 기준)했다. 킵킹그룹은 세계 3위의 향초 생산기업 및 유통전문기업으로 26개의 화장품 전문 유통자회사와 3만 3000개 유통채널 및 8만 5000명의 뷰티 어드바이저를 보유한 거대 유통전문기업이다.

라비오프는 베스트셀러 제품인 와인 메이크업 컬렉션과 프리미엄 스킨케어 제품 등 위생허가를 취득한 약 110여개의 제품을 독점 공급하고 킵킹그룹이 보유한 중국 내 유통 채널에 빠르게 입점을 추진할 예정이다. 라비오프 관계자는 "한·중 국가적인 이슈와 중국 화장품 시장이 급변하고 있는 가운데 라비오프 브랜드 가치와 제품력을 토대로 계약을 체결하게 되어 더욱 뜻 깊다"며 "이번 계약으로 라비오프가 중국 내 입지를 더욱 견고히 하고 양사 모두 더욱 발전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출처: 머니투데이



어디에 있느냐는 중요하지 않다. 어디로 가느냐가 중요하다.
现在身处于何处并不是最重要的，重要的是奔向何方。

주소: 03170서울시 종로구 사직로 130 (적선동, 적선현대빌딩 9층)
전화: 02)3210-6023 FAX: 02)3210-6010 (한중영 언어 가능)